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3, 2009. 8, pp. 205-228

어머니의 근친성학대 드러냄(disclosure)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 경 희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근친성학대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가족의 비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근친성학대 드러냄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때로는 묵인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근친성학대 피해에 대한 어머니의 드러냄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딸이 근친성학대 피해를 경험한 7명의 어머니들에게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들의 드러냄 경험의 본질적 주제는 "고통을 관통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함"으로 나타났다. 하위주제로는 '가슴 속의 응어리를 풀어냄', '차가운 외면 속에서 또다시 상처 받음', '곪은 상처를 터트리고 치료함'이 도출되었다. 어머니에게 드러냄 경험은 상처를 건드림으로써 치유의 기반을 마련하고 드러냄의 방법과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경험되었다. 특히 근친성학대의 드러냄 경험은 어머니의 인식과 의지, 타인의 반응과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들의 드러냄에 보다 전문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방법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근친성학대, 어머니, 비난, 드러냄, 현상학적 연구

1. 서론

근친상간(incest)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힘을 가진 자가 힘을 덜 가진 자에게 행해지는 비정상적이고 강압적인 성관계이므로, 근친성학대(incestuous abuse) 또는 가족내 성학대(intrafamilial sexual

abuse)라는 용어로 더 자주 사용된다(Parker, 1987; Trepper and Barrett, 1989; 전영주, 2004 재인용). 근친성학대는 아동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로서 가해자는 계부 또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남자 친구과 같은 부모 역할을 하는 어른을 포함한다. 또한 연령 또는 힘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손위 형제들과, 삼촌, 고모, 할아버지, 사촌 등 확대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학대를 포함한다(Crosson-Tower, 2005).

근친성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에 따라 구타, 강간, 근친성학대 피해를 경험했던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근친성학대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정되었다(Curtis-Webber, 1995). 하지만 이후에도 근친성학대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근친성학대는 친밀한 대상간에 이루어지는 학대인 동시에 가해자의 폭력, 비난, 회유 및 피해자의 자기 책임 귀결로 인하여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는 특성 때문에(Donalek, 2001)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은폐적 성향으로 인하여 근친성학대의 발생률은 정확하게 파악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ussell(1983)은 930명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전과 다르게 근친성학대의 높은 발생률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점화시켰다. 그녀의 연구 결과, 18세 이전에 근친성학대 피해 경험을 가진 여성은 16%였으며, 이는 Wyatt(1985)의 발생률 17%와도 매우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및 비행 청소년 1,672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를 통해 근친성학대의 발생률은 3.7%로 보고되었다(Kim and Kim,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각각의 연구 결과들을 일관되게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근친성학대의 발생률은 근친성학대의 개념 규정, 조사 지역 및 연구 대상과 방법 여부에 따라 연구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적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실제 발생률의 증가인지 또는 사회적 인식의 증가가 통계적 수치로 반영된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Finkelhor, 1984). 그러므로 근친성학대의 발생률 규명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드러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근친성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담 기관의 통계 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접하는 성학대의 많은 부분이 근친성학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2004~2008년까지 개입한 사례 총 1,223명 중 친족에 의한 피해 사례는 291건으로 2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09). 또한 아동학대 사례를 주로 다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개입한 성학대 피해 아동 424사례 중 가해자가 부모 및 친인척인 경우는 44.6%(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로 나타났다.

아동을 성학대한 가해자가 근친인 경우에, 어머니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는 아동을 치료하고 양육하며 아동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자신도 고통스런 상황에 처한 내담자이기 때문이다(김경희, 2009). 특히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성학대 하였더라도, 서구 사회에 비해 가해자인 아버지가 입원 치료나 투옥, 이혼, 경제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적으며, 가족을 보존하고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 많다(Kim and Kim, 2005). 따라서 피해 아동

의 보호에 있어 어머니에 대한 의존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은 아동의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어머니를 비난하는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다. 김경희(2009)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근친성학대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통념적 시각은 학대 발생에 대해 어머니의 책임을 묻는 공모자적 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친성학대 피해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성학대 발생을 공모했거나 묵인한 사람(오경자, 1994; 윤혜미, 1994, 안옥희, 2000; 김영서, 2000; 하정숙, 2001)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어머니들에 대한 공모자적 시각과 이들에 대한 비난을 근친성학대의 '드러냄(disclosure)'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근친성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관해 도움을 청하거나 치유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성학대의 발생을 외부로 드러내야만 한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근친성학대 피해 아동의 드러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일단 성학대 사실이 드러나야만 아동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의 근친성학대 피해는 아동과 정서적 및 물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인 어머니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머니는 근친성학대가 드러나지 못했을 때, 어머니로서의 책무 소홀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비난의 기저에는 어머니가 근친성학대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안 후에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노혜련, 1996; 전영주, 2004 재인용)는 사회적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어머니들의 행위를 '알려고 하지 않음'이나 '묵인'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근친성학대와 관련된 복잡한 관계적·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한 개인에게 '은폐'라는 책임을 지워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또한 만약 어머니들이 실제로 드러냄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묵인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역할은 그들에 대한 도덕적 비판자의 위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맥락을 보다 깊이 탐구함으로써 개입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교적 문화 속에서 피해자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개입에 저항하는 한국적 문화의 특성(박명숙·한인영·유서구, 2008)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성학대 드러냄 과정과 경험에 대한 탐구는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정신보건실천 경험 및 김경희(2009)의 연구수행 과정을 통해 근친성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들의 드러냄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접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가족 내에서 발생한 성학대를 어머니가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한 경험을 탐구할 목적을 갖고 당사자들의 경험을 내부자적 관점으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과제는 "어머니가 딸의 근친성학대를 드러냄의 경험의 본질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또한 드러냄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맥락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드러냄 과정에서 당면하는 주요 갈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드러냄' 경험을 탐구하기 이전에 먼저 '드러냄'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드러냄'(disclosure)이란 용어는 비밀을 폭로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성학대를 보고(reporting)할 때는 '드러냄'을 더 자주 쓰지만, 성인이 자신의 성학대 피해 경험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는 말하기(telling)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Alaggia, 2004). 그러나 여러 문헌들에서 드러냄(disclosure)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전문가에게 학대를 보고하는 보다 공식적인 행위까지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Jones, 2000).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어머니의 드러냄 경험을 포괄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드러냄'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다소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드러냄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자녀의 근친성학대에 관해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telling)부터 보다 공식적으로 기관에 도움을 청하고 법정 진술을 하는 것(reporting), 드러내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speak out)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장 고통스런 주제에 대해 말하기를 촉구 받는 어머니의 상황과 경험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근친성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어머니를 돕는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근친성학대에 관한 초기 문헌은 어머니가 학대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개념화한다(Lovett, 2004). 가족체계모델에서는 근친성학대를 역기능적 가족의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가족체계모델은 가족을 상호의존된 부분들로 이루어진 체계로 보고 전체 가족원이 심리적으로 개입된 구조적 유형이 근친성학대의 발생과 유지에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친성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각 구성원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묵계적 음모'에 참여하며, 심리적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항상성 유지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본다(노혜련, 1996; 전영주, 2004 재인용).

가족 역동에서 중요한 개념은 정신과 의사 Summit에 의한 "아동 성학대 적응 증후군(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족 속에서 비밀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성학대가 지속되며, 아동은 무력감과 덫에 갇힌 느낌 속에서 점차 성학대가 반복되는 삶에 적응하게 된다고 보았다. 아동은 때때로 갈등적이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학대를 드러내지만 비가해 부모(대개 어머니)는 그러한 메세지를 간과하거나 잘못 해석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말을 스스로 철회(retraction)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Crosson-Tower, 2005). 즉, 가족 역동 속에서 어머니는 아동의 직접적·간접적 드러냄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성학대의 순환적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인식되었다. 병리적 가족(pathological family) 측면에서, 어머니에 대한 비난은 주로 어머니의 성격 특성, 역할 수행의 부재, 직접적 및 간접적 참여, 재발을 막지 못하는 것의 네 가지 범주로 압축된다(Mcintyre, 1981). 즉, 근친성학대가 발생했거나 지속된 원인을 그 어머니에게 찾으면서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이 냉랭하고 수동적이며,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족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근친성학대를 발견했을 때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어머니를 학대의 행위에 직접적·간접적 참여한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여성주의 관점(feminism perspective)에서는 근친성학대 가족을 체계(systems)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를 강조하고 가해자와의 권력 관계에 놓여 있음을 주목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어머니의 역할에만 초점을 두는 기존 이론에 반발하였다(Finkelhor, 1984). 따라서 이들은 가해자의 역할, 즉 힘과 통제의 사용에 더 초점을 두었다(Crosson-Tower, 2005).

이에 따라 여성주의 관점의 연구자들은 근친성학대 가족 속에서 어머니들의 개별적 경험과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어머니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Hooper, 1992; Dempster, 1992; Johnson, 1992; Carter, 1999; Bell, 2003; Plummer, 2006).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에 전문가적 관점에서 표면적으로만 파악되었던 관찰 대상자로서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모습을 그들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밝혀냈다. 특히 어머니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측면, 가정 폭력, 사회정치적 문화 등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어머니들은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아동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적인 모습(Dempster, 1992)으로 나타났다. 국내 문헌 중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어머니의 경험을 당사자 시각으로 드러낸 연구로는 정명희(2004)와 김경희(2009)의 연구가 있다. 정명희(2004)의 연구는 딸의 성폭력 피해를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건화한 어머니들의 말하기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머니들이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모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김경희(2009)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의해 딸이 성학대 피해를 당한 어머니들이 심리적 충격과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지키며 역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조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고 이들을 비난하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시각은 어머니를 아동의 주양육자로 보고,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통적으로 어머니에게 지우는 사회적 기대와 관련되어 있다(Massat and Lundy, 1998). 국내 문헌에서 근친성학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김경희(2009)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관계성 속에서 수동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1990년대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박혜영 외(1996)는 가족체계적 관점에 의해 근친성학대 가족의 역동을 규명하였고, 이수경과 곽영숙(1994)은 소아정신과에 내원한 아동에 대한 임상 연구(clinical study)를 통해 분노감, 묵인, 죄책감을 보이는 부모 반응을 서술하였다. 한편, 최근에 수행된 근친성학대 관련 질적연구에서는 아동의 시각에서 바라 본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 때 어머니는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엄마”(한인영・김진숙・박명숙, 2008)로 개념화되었으며, 한 사례의 어머니만 적극적인 자녀의 방패막이로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줌으로 묘사되었다(한인영・김진숙・박명숙・유서구, 2008). 하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대부분 쉼터 입소 아동이므로, 이미 어머니가 물리적・정서적으로 부재하거나 알콜중독 등의 다른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근친성학대 가족 속에서의 어머니와 관련된 국내 문헌들은 1990년대에는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성학대 발생 후 어머니 역할과 반응을 의료전문가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질적연구방법이 적용되면서, 아동의 시각에서 바라 본 어머니의 모습 및 어머니 자신의 목소리에 의해 자신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드러내는 연구들로 다양화되고 있다.

어머니의 드러냄 경험과 관련한 연구들은 근친성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 또는 성인 생존자들의 드러냄(disclosure) 주제와 달리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아동의 드러냄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 아동은 가족 속에서 드러냄을 시도하지만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이후에

드러냄 자체를 억압하게 된다는 것과, 그러한 드러냄의 실패 경험은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이다. 아동과 달리, 성인 생존자의 드러냄은 양면적인데, 역량강화 및 도움을 추구하는 행위(Laidlow and Malmo, 1990)이기도 하지만, 위기와 쇠락(decline)의 맥락에서도 일어난다(Macnulty and Wardle, 1994). 따라서 성인 생존자의 드러냄은 위기와 기회의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의 역량과 드러낸 대상의 반응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여러 방향과 층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근친성학대 피해 자녀 어머니들의 드러냄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드러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드러낸 후의 결과와 관련된 것이다. Jensen(2005)은 성학대가 분명치 않은 경우, 어머니는 불필요한 혼란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완벽한 확신을 가진 후에야 아동에게 직접 질문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질문 보다는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 탐색한다는 것이다. 드러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의 심리적·환경적 맥락이며(Hooper, 1989), 특히 가족 속에서 어머니들이 만성적인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드러냄에 어려움이 많았다(Hooper, 1989; Devoe and Faller, 1999). 만성적인 폭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어머니들은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실패할 것이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속박된 느낌(captivitiy)(최현정 역, 2007)을 갖기 때문이다. Massat and Lundy(1998)는 근친성학대 가족에서 비가해 부모는 학대 보고 후, 관계적, 재정적, 직업적, 주거지 측면에서 대가를 치른다고 하였다. 특히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근친성학대에 대한 비난과 수치의 시선 때문에 비가해 부모들은 드러냄 후에 기존에 맺었던 여러 관계와의 상실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들이 가족 내외적 환경에서 당면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하여 성학대를 드러낼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갈등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아버지가 경제적 부양을 전적으로 담당할 경우, 어머니들은 재정적, 직업적, 주거지 측면의 변화 때문에 이 사건을 드러냄으로써 사건화 하는 데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검토한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들의 드러냄은 개인과 집단, 문화와 연결된 상호작용 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머니들의 드러냄을 가족체계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체계 안에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 연구 방법 및 과정

1) 연구 참여자 선정과 모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30대~40대의 어머니 7명으로 딸이 그녀의 친부, 친척, 오빠 등 친족에 의해 근친성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이다. 딸의 가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4명, 아들과 친척인 어머니가 3명이었다. 배우자가 딸의 가해자인 어머니는 김경희(2009)의 연구를 통해 이미 신뢰 관계를 구축한 어머니들로서 그 중 4명의 어머니가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기관담당자와 어머니들의 소개를 통해 다른 어머니들을 모집하였으며, 딸의 성학대 가해자가 아들과 친척인 어머니 3명

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자녀의 성학대 관련된 경험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 딸의 연령대는 성학대 발생 당시로 계산한 것이다.

참여자	어머니 연령대	딸 연령대	성학대 가해자	어머니가 성학대를 알게 된 과정 및 가정적 특성
A	40대	중학생	아동의 친부	여동생을 통해 자녀가 성학대 받았음을 알게 됨(자녀들이 이모에게 도움을 청함). 생활력이 강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음. 성학대를 시댁 식구들에게까지만 드러내고 합의 이혼함.
B	40대	미취학	아동의 친부	의심스런 상황 목격 했으나 믿지 않다가 계속되는 자녀 행동 문제로 인해 성학대를 확신하고 남편과 이혼 소송 결정함. 남편으로부터의 가정 폭력(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 매우 심했음.
C	30대	미취학	아동의 친부	남편이 아기인 딸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딸이 크면서 딸의 말을 통해 성학대가 반복됨을 알게 됨. 남편으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심했음. 성학대 드러냄을 망설였으나 결국 남편과 이혼 소송함.
D	40대	중학생	아동의 친부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이 양육권을 가졌기 때문에 딸과 떨어져 지냈음. 그러나 딸로부터 남편의 성학대를 듣게 되어 딸을 데리고 왔음. 성학대에 대해 목사님 등 주변 교인들과 상의했으나, 남편과 잘 합의하는 쪽으로 주로 조언을 들었음.
E	40대	초등학생	아동의 오빠	딸로부터 오빠가 성학대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됨. 남편과 협력하여 가족 속에서만 이 문제를 다룸.
F	30대	미취학	아동의 사촌 오빠	딸의 말을 통해 그동안 여러 번 (딸의)사촌오빠가 딸을 성학대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됨.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친척 속에서 이 사실을 드러냈음.
G	40대	초등학생	아동의 고모부	딸의 말을 통해 이웃에 살고 있는 고모부가 딸에게 비밀을 강조하면서 성학대 했음을 알게 됨. 이 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결국 친척과의 갈등으로 이 사실을 드러냄. 가해자를 고소함.

2)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루어졌다. 한 참여자와 약 2시간 정도의 면접을 1~2회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어머니가 근친성학대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또는 드러내는 것의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 질문을 통해 어머니가 딸의 성학대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관하여 탐색하였다. 4명의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의 기존 연구(김경희, 2009)에 참여했으므로 신뢰 관계가 구축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자가 성학대의 발생과 맥락에 관한 배경 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어머니들에게는 우선 1회 2시간 정도의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내용 분석 후 진술의 의미를 더 탐색하고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면접을 실시하였다. 새롭게 참여한 연구 참여자 3명에게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씩의 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허락을 받고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면접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집, 기관 상담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van Manen(1990)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해석학적 방법으로서 현상에 대한 지향과 경험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추구한다. 연구자는 연구 분석 과정에서 발견을 지향하고 통찰을 자극하는 수단으로써 van Manen이 제시한 생활세계의 기본 구조인 신체성, 공간성, 관계성, 체험성을 반성적 길잡이로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필사된 자료를 여러 번 읽고 전체적 감을 잡은 후에 부분적으로 집중해서 보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였다. 의미 단위로 진술을 나누고 코드를 붙이고, 다시 의미 진술을 모으고, 전체적인 의미로 조합하는 과정을 순환하면서 현상을 특징짓는 본질 주제를 반성함으로써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3)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진행 및 참여에 대해 안내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인터뷰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사례를 하였다. 근친성학대가 매우 민감한 주제이므로 참여자들이 연구 인터뷰로 인한 재피해화를 경험하지 않도록 미리 이에 대한 사전 설명과 정서적 지지,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계획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익명으로 저장하였고,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개인사물함에 보관함으로써 연구 자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정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Lincoln과 Guba(1985)의 신빙성(credibility), 확증성(conformability), 적용성(transferability), 신뢰성(dependability)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신빙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장기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감한 주제에 관한 경험을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내용의 질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깊이 있는 신뢰 형성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2년 전부터 성학대 가족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고, 부모 모임,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서 아동성학대를 경험한 어머니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오랫동안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부모 상담을 진행했던 경력이 사례를 의뢰해 준 기관과 연구 참여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해 참여자에게 확인하고 내용과 방향을 점검함으로써 신빙성을 확보해 나갔다. 둘째, 확증성 확보를 위하여 자료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 아동성학대 주제에 관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선이해를 괄호치기하고 개방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연구 결과에 간주관적 동의(intersubjective agreement)를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적용

성 확보를 위하여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넷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뷰와 분석의 전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원자료와 과정의 기록들을 남겨 놓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주제 분석

본 연구의 결과, 근친성학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성학대를 드러냄 경험의 본질적 주제는 "고통을 관통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함"으로 도출되었다. 하위 주제로는 '가슴 속의 응어리를 풀어냄', '차가운 외면 속에서 또다시 상처 받음', '곪은 상처를 터트리고 치료함'이 포함되었다. 어머니의 드러냄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드러냄 과정에서 실제로 당면하는 주요 갈등을 주제어로 집약하였다. 드러냄과 관련한 어머니들의 주요 갈등은 '자기 책임론' 대 '자기 역할의 한계 각성', '가족에 대한 충성심' 대 '딸의 어머니로서의 결단', '상실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대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요청',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대 '당당함을 지향하는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났다.

1) 어머니의 성학대 드러냄 경험의 본질적 주제: 고통을 관통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함

본 연구에서 근친성학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딸의 성학대를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냄의 의미는 '가슴 속의 응어리를 풀어냄', '차가운 외면 속에서 또다시 상처 받음', '곪은 상처를 터트리고 치료함'으로 경험되었다. 어머니의 드러냄은 누군가 그 말을 들어 줄 사람을 향해 있다. 어머니는 대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주변 사람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객관화시켜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숙고하였다. 어머니가 드러낸 말들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진행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드러냄의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였지만, 드러냄의 상호작용과 결과에 대처하는 경험을 통해서 주체적인 역량을 성숙시켜 나갔다. 어머니의 드러냄이 더 깊은 상처에 멈추지 않고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를 지지하고 돕는 다른 말들의 바탕이 있었다.

(1)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냄

어머니에게 드러냄은 자신의 억울한 삶에 대한 호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분노의 표출, 옥죄던 답답한 심정의 해소로 경험되었다. 한 어머니는 남편의 성학대를 아는 순간, 20년 넘게 맏며느리로서 시댁을 위해 헌신해 온 자신의 삶을 억울하게 느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남편과 맞서겠다는 투쟁의 선포로써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성학대의 내용이 담긴 딸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남편의 성학대 사실을 알렸다.

"그런 얘기를 시댁 쪽에 얘기를 했을 때... 속은 시원했어요. 억울한 건 없었으니까..."(어머니 A)

다른 어머니는 자신의 조카, 즉 딸(유아)의 사촌오빠로부터 딸이 성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곧바로 그 집으로 달려가 사실을 확인한 후 화내고 때리면서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분노는 동시에 "너는 바보냐?"는 말로써 딸에게로도 향했다. 하지만 그 후에 딸이 더 이상 성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는 의도치 않게 자신이 딸을 '입막음' 시켰다는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렸다. 어머니의 당황스러움과 분노의 감정이 초기에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딸에게 설익은 상태로 표현되었을 때, 그러한 드러냄은 어머니와 딸에게 오랜 동안 상처로 남았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상황을 못하게 제가 입을 딱 막아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조건 챙피하고 안 되는 일인데 너희 둘이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잠깐 마무리 시키고, 굉장히 겁나는 일로 우리 딸한테 퍼붓고 딱 돌아서서.."(어머니 F)

아들이 딸을 성학대한 어머니, 즉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어머니에게 드러냄 경험은 폭로나 분출이 아니라 홀로 삭여야 하는 말을 나눔으로써 답답함을 해소하는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이 어머니에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과 관계, 즉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어머니들의 모임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 어머니에게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어머니들의 지지집단에서의 드러냄은 후련함으로 경험되었다.

"말 못하는 부분을 말할 데가 있다는 게 해소가 되요. 그 모임(아동성학대 피해 자녀를 둔 가족들의 모임) 자체도 제가 아무 말을 하건 간에 비밀이 지켜지는 모임이잖아요."(어머니 E)

(2) 차가운 외면 속에서 또다시 상처 받음

어머니가 딸의 성학대 사실에 대하여 드러내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과정이고 진실을 알아주었으면 바램으로 표출된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성학대 사실을 드러낸 후, 주변 가족 관계에서도, 법과 사회질서가 지배하는 법정에서도, 그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경험하였다. 어머니가 친정과 시댁 식구, 친구, 목사님 등 주변 사람들에게 딸의 성학대를 드러냈을 때 그들은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성학대 사실을 들먹이며 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의 가족, 시댁 또는 친척들로부터 외면 받는 경험을 하였다. 그들은 딸의 성학대 사실에 대해 어머니와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드러냄을 통해 도움과 지지를 기대했던 어머니에게 타인으로부터의 외면과 비난은 상처로 경험되었다.

"엄마 아빠도 아직까지 믿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얘기가 다 언니한테 들어가고... 결국에 언니가 이제 아이한테 또 너무 심한 상처가 되는 말을 했고... (어머니 C)

"큰 시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요즘에는 이혼 할 때 위자료 청구 더하기 위해서 이혼할 때 아빠가 성폭행했다 이렇게 끌고 가는 일이 많대더라..." (어머니 B)

어머니의 드러냄은 법과 질서의 사회적 공간에서도 때로 외면됨으로 경험되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에서 세명이 법정 소송을 진행하였다. 두명의 연구 참여자는 가해자인 남편을 대상으로, 한 명은 아동의 고모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어머니들에게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에서의 드러냄은 낯설고 힘든 경험이었다. 그러한 공간에서의 드러냄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뽑아갈 수 있도록 증거 기반의 공적 언어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의무와 억압의 공간으로도 경험되었다. 어머니들이 낯섦과 불편함, 그리고 진술로 인한 딸의 정서적 불안을 감당해 내면서도 법정 공간에서 이 사건을 드러낸 것은 법은 진실을 알아주고 가해자를 심판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가 불기소를 받거나 가해자의 항소로 인해 형량이 감량됨을 경험한 어머니들은 사회적 공간 역시 사회적 약자인 자신과 딸을 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1심에서 1년 6개월을 형량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형량이 억울하다고 재판을 다시 항소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편을 들어서 1년이라고 형량을 줄여주더라구요. (중략) 저는 그 분노, 악에... 이제 복받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어머니 G)

또한 어머니들의 드러냄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다시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가해자가 조카인 한 어머니는 딸의 억울함을 위해 자신의 언니(가해자의 어머니)와 싸웠지만, 딸의 말을 다 믿느냐며 당당하게 소리치는 언니 앞에서 더 이상 잘잘못을 가릴 수 없음을 느꼈다.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조카를 고소하지 못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조카와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결국 성학대 사실을 묻어버리자고 말하게 된다. 어머니는 당연히 잘못을 빌 줄 알았던 가해자가 자신의 기대만큼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성학대 피해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자신과 딸이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인 상황임을 깨닫게 된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드러냄의 결과가, 자신과 딸에게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제가 몇 번 싸울 때 (언니한테) 그래서 너네 아들이 이랬다 이랬다 했더니 애기 말을 믿니? 애가 안했다는데 큰애가 안했다는데 애기말을 믿니? 애기들은 뭐 거짓말도 하고 뭐 꾸미는 말도 진짜처럼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야! 됐다.... 그만하고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말하지 말고 다니라고..."(어머니 F)

딸의 성학대 가해자가 오빠인 한 어머니는 근친성학대에 대한 초기 대처를 신중하게 잘 했고 딸 또한 성학대를 더 이상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 치유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딸이 그 일을 친한 친구에게 알린 것이 학교 전체와 부모들에게로 확장되면서, 가족 모두는 주변의 소문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 일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비밀'이라고 다시 입막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딸의 성학대가 지역사회에서 드러남으로 인해 겪었던 혹독한 상처로 인하여, 안전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도록 자신과 딸을 철저하게 단속하였다. 드러냄 이후 소외와 상처는 그것을 더 깊숙이 밀어 넣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저는 그 부분은 꽁꽁..그 러시아 인형처럼... 몇 꺼풀 벗겨야만 나오듯이... 그 마주르카 인형인가요? 그렇게 딱 포장해서 벽장 안에 넣어놓은 심정이거든요. 절대 아무도 이걸 풀어보지 못하게끔... 박스에서 딱 이걸 테이핑 해 갖고... 나조차도 풀어볼 수 없게끔 그렇게 해 놓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어머니 E)

(3) 곪은 상처를 터트리고 치료함

어머니들에게 드러냄은 '곪은 상처를 터트리고 치료함'으로 경험되었다. 어머니들의 드러냄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곪은 상처를 인정하고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이후의 계속된 드러냄은 어머니들에게 해결 방법을 찾고 학습하며 역량을 구축해 가는 과정으로 경험되었다. 어머니들에게 드러냄은 상처를 검토하고, 잘라내며, 새살이 돋울 기회를 만드는 기회로 경험되었다.

어머니들은 근친성학대를 알게 된 후 고통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주변에 상의하였다. 산부인과 의사, 알고 지내던 의료 또는 상담 전문가, 믿고 의지하던 수녀님,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변에서 "가해자의 그런 행동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필요하면 증인이 되어주거나 주거지 또는 아이 돌봄 측면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어머니의 드러냄이 구체적인 계획과 결정으로 진일보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다른 사람들의 진지한 조언과 지지는 어머니가 믿고 싶지 않은 일을 스스로 인정하고 남편의 부인(denial)과 폭력 및 가족의 분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드러내는 데 바탕이 되었다.

딸의 근친성학대에 대해 감을 잡았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여 시간을 끌던 한 어머니가 성학대 관련 전문기관에 전화를 직접 걸기까지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근친성학대와 같은 사회적 금기의 사건의 경우, 특히 어머니가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아동이 말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그것을 확신하기까지 타인의 시선과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어머니가 어렵게 학대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믿어주거나 적절하게 조언을 해 주지 못했을 때, 이러한 주변의 반응은 수면 위로 어렵게 드러낸 진실을 다시 눌러 버리는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학대를 드러냈다가 믿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경험한 어머니는 한동안 그 문제를 묻어둔 채로 지냈다. 이 어머니는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믿어주는 경험을 한 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 수 있었다. 1년 넘게 주변 탐색의 시간을 보낸 후였다.

"그 전화를 거는 시간까지 1년이 걸린 거예요. 전화 한 번 거는게... 그 이전에는 전화 한 번 할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주변에 사람들한테 우선 가까우니까 말해 보는 거지...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고 말해봤는데... 말하기 싫고 계속 뒀다가.. 뭔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거는 어쨌든 내 혼자 상상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구..."(어머니 B)

어머니는 자신이 성학대 관련 전문 기관에 전화를 걸었을 때 가장 힘이 됐던 말은 "아이의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아이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아이의 말을 믿으셔야 해요..."라고 하였다. 아동을 믿으라는 전문기관의 말을 들은 후에 어머니가 즉각적으로 기관을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그 후에 계속 생각하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채비를 갖추었다. 어머니에게 드러냄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경험되었다. 어머니들은 드러냄으로써 도움이 되는 방법과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어머니들에게 드러냄 과정을 통해 도움을 받고 지식과 자원을 축적해 나갈 수 있음을 학습하는 경험이 되었다. 이에 따라 어머니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구축해 나갔다.

"말을 하고 나니까 방법도 찾아져요.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나 힘들어서 죽겠어 하니까 사람들이 책이라든가 뭐 계속 준단 말이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게 되고.."(어머니 B)

"(동사무소를 찾아갔는데)선생님이 여기 저기 알아봐 주고 나서 수급자를 해주고 돈 지원도 받게끔 해주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식권도 주잖아요. 그거를 한달치를 주더라구요. 당장 밥해 먹기 힘드니까... 진짜 그분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았어요."(어머니 A)

어머니에게 드러냄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경험되어졌다. 말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걸로 인해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삶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상실은 역설적으로 '비워졌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김'으로도 경험되었다. 특히 딸의 성학대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어머니들은 드러냄으로 인해 가장 많은 상실을 경험하였다. 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아왔던 어머니에게 딸의 성학대를 '드러냄'은 남편과의 투쟁, 이별 뿐 아니라 자신이 오랜 동안 거주했던 삶의 터전의 상실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당장의 경제적·재정적 상실 뿐 아니라 앞으로 그 지역에서 자신의 직업 및 지지체계가 되어 줄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들을 송두리째 상실함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새로 옮긴 지역적 공간은 낯설긴 해도 오히려 자신들을 옭아매는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경험되었다. 어머니에게 상실을 견디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나서는 과정은 '맞서 이겨냄'으로 경험되었으며, 이렇게 어머니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획득함은 자신을 살려내는 힘이 되었다.

"말하는 건 고통스럽긴 했어요. 말할 때마다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 뒤에도 못 자고.. 내가 했던 말들이 눈만 뜨고 있으면 이리 떠오르고 저리 떠오르고 혼자서 뒤죽박죽거려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나 혼자 해냈어요. 극복해내는 힘이 생기더라구요.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나니까.. 힘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내가 편안해져요."(어머니 B)

"맞서서 이겨내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해냈다는 거 그런 게 나를 살려내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팔이 여기서부터 곪아 썩어서 올라오는 데 잘라내야 할 거는 잘라내야지 되는 건데..."(어머니 C)

반면, 가해자가 아들이거나 친척인 경우에는 가정의 붕괴 또는 친척들과의 혈연관계를 끊어냄이 없었으므로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관계적 및 재정적 상실은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점이 어머니들을 계속 갑갑하게 조이는 굴레로도 작용하였다. 이들은 곪은 것을 솎아 내거나 터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적으로 다독이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해자가 남편이 아닌 근친성학대 피해 자녀의 어머니들에게 드러냄은 삶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다는 가해자 가족은 쉽게 잊고 잘 지내는 데 비해 피해 가족은 점점 더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부딪치며 더 큰 배신감과 상처를 느끼는 측면이 더 많았다.

2) 성학대 드러냄 과정에서 당면하는 주요 갈등

어머니는 근친성학대를 드러냄에 있어서 성학대가 분명한가, 가해자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내가 노력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터트리는 것은 아닐까,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나와 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확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머니가 성학대 드러냄 과정에서 겪는 주요 갈등은 '자기 책임론' 대 '자기 역할의 한계 각성', '가족에 대한 충성심' 대 '딸의 어머니로서의 결단', '상실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대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요청',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대 '당당함을 지향하는 과정'으로 요약되어진다.

(1) 자기 책임론 대 자기 역할의 한계 각성

어머니가 딸의 성학대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가해자는 분명히 자신이 아닌 남편, 아들,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성학대의 원인을 먼저 자신에게서 찾아보았다. 어머니들은 성생활의 불만족, 아이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의 미진함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보면서 학대의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찾았다. 이러한 어머니의 인식은 딸의 성학대 문제를 가해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 보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배우자가 딸을 성학대한 경우, 더 두드러졌다. 어머니는 가해자가 아니었지만 자신이 노력하고 아이를 잘 돌봄으로써 남편으로부터의 성학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딸과 밀착되어 지내면서 위험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내가 자석처럼 애한테 붙어만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내가 일을 안 하면 되지 않냐..."(어머니 B)

그러나 자기 책임론 속에서 역할의 한계를 느끼며 괴로워하던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 주었다. 또한 가해자가 아닌 자신이 혼자만의 비밀스런 노력으로 딸을 지켜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각성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 어머니는 남편과 딸이 둘만 붙어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잠도 못자면서 아이 옆에 곁을 지키며 심해져가는 만성 두통을 약으로 다스리고 지냈다. 이 어머니는 어느 날 괴로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에게 자신과 딸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그리고 의사가 성학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고민하였다.

"의사가 이거는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십시오... 아... 그래야겠구나. 그리고... 막 깨더라구요. 무슨 깊은 잠에 있다가 확 깨는 것처럼 머리가 확 깨면서.... 나와서 그 복도에 앉아서 펑펑 울고 그랬어요."(어머니 C)

(2) 가족에 대한 충성심 대 딸의 어머니로서의 결단

가족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가족 구조와 관계 유지가 중요시 될 때, 어머니들이 가족 관계에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드러냄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으로 경험되었다. 어머니들은 외부에 이 사실을 드러낼 때, 특히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당면하게 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다. 가해자가 남편 또는 가족원인 경우, 어머니가 가해자를 판단하는 데는 법과 정의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인지상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머니는 딸의 성학대를 인정하고 딸을 지지하면서도, 가해자에게 죄를 묻는 것이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였다. 어머니에게 딸의 성학대를 외부적으로 드러냄은 문제의 해결로서 보다는 '파문의 확산'으로 인식되었으며, 어머니는 자신이 대결구도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한 어머니는 딸의 성학대가 드러난 것은 친척들 간의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며 자신이 일부러 드러낸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근데 그 사람들(성폭력 가해자)의 특징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다 지식층의 교수나, 또 이걸 준비하다가 인제, 친구가 검사인 사람이 있어요. 인제 친한 친구니깐 인제 이런 사례들을 몇 건 뽑아 봤나봐. 몇 건 있더라. 근데 끝까지 부인한대. 자기 잘못 아니라고, 근데 어느 교수래. 근데 나중에 보니깐 자살했데. 끝까지 항변하다가 결국엔 자살했다고 하더라구. 남자가, 아빠가. 딸을 성추행한 사람인데..."(어머니 D)

"나하고 아이가 어차피 이렇게 일 저질러 진 거 아픈 가슴 이렇게 삭히면서 죽을 때까지 무덤 속으로 갖고 들어 가면은 형제들 여러 사람이 편안하잖아요. 알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어머니 G)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드러냄으로 나아가는 밑바탕에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배우자에 의한 성학대의 경우, 어머니에게 '떳

떳하고 당당한 엄마'가 되려는 의식은 드러냄의 주요 추동력이었다. '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터지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라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도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이 자신뿐 아니라 딸의 삶에 내리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딸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기준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애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거... 진짜 시집갈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거.. 애들한테 떳떳해야 되겠다는 거... 당당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야지 애들이 어딜 가서 기는 죽지 않겠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생각한 것 같애요"(어머니 A).

(3) 상실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대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요청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 어머니가 드러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종속 및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남편과 자신과의 사이에 뚜렷한 권력관계가 존재함을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드러냄의 결과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강제적 폭력과 억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딸의 성학대를 눈치 채거나 목격하더라도 증거 없이 드러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무기력한 결과를 예상하며 시간을 지연시킨다. 또한 드러냄은 필연적으로 남편과의 갈등의 심화 또는 가정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에 당면해야 함을 두려워하였다.

"저쪽에서 부정할 것은 뻔하고 그러면 나는 또 아프고.. 혼자 되서 아이 또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내가 직접적으로 맞서고 해결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안했던 것 같애요."(어머니 B)

돌도 되지 않은 딸에게 성적인 행동을 취하는 남편의 모습을 목격한 한 어머니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이 나를 때리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싫어하는 일에 맞선다는 것이 폭력을 자초하는 일이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가족 내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 뿐 아니라 유아였던 딸도 그런 가족 상황 속에서 엄마가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싸움을 할 때에는요, 안방 문 걸어잠그고 패요. 아이들이 밖에 있어도 들은 척도 안해요. 텔레비전 소리만 더 커져요. 아이들은 소파에서 텔레비 볼륨만 키워요. 근데 아기(성학대 받았던 딸이 좀 더 어렸을 때)만 여기(방)에 있어요. 그래서 다 봐요... 그래서 **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엄마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해 줄 수 없었던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어머니 B)

이와 같이 두려움으로 인한 망설임에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드러냄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가족 내

의 긴장의 팽창, 고통의 심화가 촉진요인이 되었다. 딸의 성학대를 직접 목격 또는 들었거나 어렴풋이 감을 잡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상실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모른 척 지내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어머니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였다. 특히 참고 사는 동안 딸에 대한 성학대가 반복되거나,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 심해지거나 관계가 더 악화될 때, 어머니는 참고 사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어머니는 벗어나기 위하여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는 드러냄으로 나아갔다.

"막 느닷없이 때리고 그러는데, 피가 쫙 퍼졌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그걸 보고 막 울었단 말이예요. 엄마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막 우는데... 그런데 소리 나간다고 창문을 다 닫는 거예요. 질질 끌고 다니면서 창문을 다 닫고서는 막 엄청나게 막 때리더라구요. 그 때 내가 아... 이대로 있으면 애도 죽고 나도 죽겠다."(어머니 C)

(4)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대 당당함을 지향하는 과정

어머니에게 딸의 성학대는 딸과 자신을 위해 잊고 싶은 일이며, 딸을 위해 언제까지나 비밀로 지켜주고 싶은 일이다. 어머니들은 성학대와 관련된 어떤 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듯이 순식간에 소문으로 퍼져서, 딸과 가족이 성학대 사건보다도 오히려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후유증을 더 크게 앓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였다.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주변의 시선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드러내는 순간 이미 남들이 나와 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시선이 늘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함으로써, 평생 자격지심 속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드러낼 때 걱정되는 건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 데 나는 자격지심이 있잖아..."(어머니 A)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드러냄을 위축시키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과 미래에 자신과 딸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생각이 미칠 때, 어머니들은 적절한 드러냄을 고려하였다. 어머니는 자신이 비밀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 사건은 딸, 형제, 가해자,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언젠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는 드러냄을 통해 도움을 청함으로써 이 일을 맞서서 극복해 나가려 하였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지의 시선에 상관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해지기 위해서 어머니는 주체적으로 드러냄을 선택하였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선생님한테도 말할 수 있고, 양호선생님한테도 말할 수 있고, 하다 못해 친하게 지내는 친구한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누군가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상황에 비겁한 엄마 이게 되는 거죠. 수습하지 않는다면..."(어머니 B)

본 연구에서 가족 외부로 성학대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어머니는 가해자가 자신

의 아들인 경우였다. 어머니는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가해자의 어머니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가해자를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또한 친척들 사이에서 손자, 장손인 자신의 아들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아들에게 가해자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에 대해 철저히 함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드러냄은 두 자녀를 다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된다.

5. 결론 및 함의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딸의 근친성학대를 드러냄 경험의 본질과 그 의미, 그리고 드러냄 과정에서 겪는 주요 갈등에 대해 탐구하였다. 어머니들에게 드러냄 경험의 본질적 주제는 "고통을 관통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함"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에게 드러냄 경험은 '가슴 속의 응어리를 풀어냄'과 '차가운 외면 속에서 또다시 상처받음', '곪은 상처를 터트리고 치료함'으로 경험되었다. 어머니들에게 드러냄은 후회와 상처로도 경험되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선택적인 드러냄이 필요함을 깨달으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또한 드러냄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이었다. 본 연구 결과 가해자가 남편인 어머니들의 드러냄 욕구는 치유를 원하고, 더 이상의 학대 속에서 살지 않도록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성학대 생존자들이 학대를 드러내는 이유(Roesler and Wind, 1994)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가슴 속의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하여 드러냄을 시도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위기의 맥락에서 근친성학대 피해 경험을 가진 성인 여성이 그 사실을 드러내는 측면(McNulty and Wardle, 1994)과도 매우 유사하다.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가 남편인 어머니들의 드러냄은 성인생존자의 드러냄의 특징과 피해아동의 드러냄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머니의 드러냄은 정신적 및 신체적 균형을 잡고자 도움을 청하는 역량강화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근친성학대 피해아동과 마찬가지로 드러냄의 시도가 주변의 반응에 따라 철회되거나 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양면적 특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가 드러냄 과정에서 겪는 주요 갈등은 드러냄의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들이었다. 어머니들의 현실적 두려움은 Massat and Lundy(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근친성학대를 드러냄의 결과로써 어머니들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적 상실, 주거지와 수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가해자가 남편인 경우, 어머니들은 초기에는 자신이 희생하여 자녀를 잘 돌보는 역할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가해자와 싸워나감으로써 갈등적 상황에 놓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다. 특히 어머니 역할에 대한 비난과 딸에게 근친성학대 피해자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머니의 드러냄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반면, 어머니들을 드러냄으로 이끄는 추동

력은 현실에 대한 자기 각성과 결단이 근간이 된다. 가족 안에서의 자원의 부재와 고통의 심화에 한계를 느낀 어머니의 외부 지원 요청의 필요성 인식, 당당한 엄마가 되고자 하는 열망, 주변의 적절한 조언과 지지는 어머니들의 드러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드러냄을 믿고 지지해주는 다른 목소리들은 어머니의 드러냄에 많은 용기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유형을 나누어 어머니의 드러냄의 특성과 의미, 드러냄의 역동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어머니들에게 딸의 성학대를 드러냄의 경험은 보다 다양한 의미를 지녔다. 어머니들이 공적으로 딸의 성학대를 드러냄은 물질적·경제적·사회적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어머니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짊어짐은 스스로 당당해지는 과정이며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으로써 극복의 과정이 된다.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 어머니들의 드러냄은 가장 고통스럽고 충돌이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변화도 컸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의 기회를 갖는 의미를 가장 크게 지녔다.

또한 어머니의 드러냄은 성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와 기존의 남편과의 관계,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지지체계 정도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어머니가 직접 성학대가 일어나는 상황을 목격하지 않은 채 '감'에 의해 그것을 인식한 경우, 가정폭력이 심각한 경우일수록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직면하고 대항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해자가 배우자인 어머니들 중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던 어머니들은 딸의 성학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는 데 모두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들은 가해자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다가 한계에 부딪치며 더욱 좌절하는 역동을 상당 기간 반복하였다. 이와 달리, 어머니가 직접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니거나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인 경우에는 드러냄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갈등이 훨씬 적었다. 이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딸의 성학대가 발생할 경우 어머니의 고통은 심화되는 반면 성학대 사실은 은폐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폭력이 존재하는 가정에서 성학대의 발생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 가해자가 아들 또는 친척인 경우에, 어머니들은 드러냄의 초기 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관계의 갈등이 심화됨을 경험하였다. 어머니들은 초기에 남편과 공동으로 협조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며 생활의 변화가 적었으므로 초기 드러냄에서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들인 어머니는 아들을 믿으면서도 경계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 때문에 평생 드러내기 힘든 슬픔을 삭이며 살아갔다. 가해자가 친척인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는 당당한데 피해자 가족이 불편하여 가족 모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해자가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들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직후 심리적·재정적·관계적 측면에서의 상실과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계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는 평생 동안 가해자인 친척 또는 아들과 어울리고 부딪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누적되기 쉽다. 이러한 사실은 성학대의 재발 근절과 정신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이들 어머니들에게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로, 이러한 어머니들의 '드러냄' 경험의 역동은 잘 알려진 '근친성학대아동의 적응 증후군'과 유사한 역동을 보인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어머니들은 근친성학대를 조심스럽게 드러낸 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머니의 잘못일 것이다."라는 주변의 무시와 비난에 직면하는 경험을 하였다.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사회로부터 그들의 말이 묵인되고 거절됨을 경험하였다. 낯설고 불편한 사실의 드러냄은 비난과 같은 적극적인 억압 뿐 아니라 고정화된 신념이나 무지로 인한 거리두기 등의 소극적인 억압으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게 된다. 어머니들은 처음부터 기관에 직접 보고(reporting)하고 의논하기 보다는 주변에 먼저 그 사실을 말하고(telling)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관에 대한 보고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의 드러냄은 주변의 반응과 압력에 따라 중단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발생한 근친성학대 문제를 드러냄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평가 이전에 불편할 진실을 감내하고 수용할 만한 개인적, 사회적 역량에 대한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어머니들의 드러냄이 말하기(telling) 수준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침묵을 원하는 사회적 압력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제언

근친성학대 피해 자녀 어머니들의 드러냄 경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기 어머니들의 드러냄 시도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의 보다 전문적이고 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근친성학대 피해를 경험한 딸의 어머니가 전문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데는 많은 고통과 망설임의 시간이 있었다. 특히 가정 폭력 등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 어머니의 드러냄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또한 어머니들이 공적 기관에 이 사실을 드러낼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순간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전화나 상담의 초기 면접에서, 어머니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에 대한 공감적 지지 및 애도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어머니의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들에게 근친성학대 상황을 새롭게 각성하는 데 도움을 준 말들은 '근친성학대는 믿기 어렵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아동은 거짓말을 잘 하지 않으며, 아동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함', '가까운 사람에 의한 성학대일수록 반복되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동이 성장할수록 그 빈도는 더 많아질 수 있음' 등이다. 어머니의 첫 드러냄 또는 전화 상담이 이후 지속적인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첫 면접에 제공된 정보는 어머니의 이후 진행과 결정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므로 충분한 지지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둘째, 근친성학대 가해자 유형에 따라, 피해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개입이 필요하다. 우선,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아동을 위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 이전에 어머니의 충격과 상실, 고통에 관한 공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일단 어머니의 말을 믿어주고 어머니가 받았을 그

동안의 심리적 고통을 지지해 줌으로써 어머니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 및 재정적 문제가 어머니들의 선택과 자립에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안전한 쉼터의 제공, 재정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등 현실적 지원책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아들이거나 친척인 경우에는 어머니 혼자 도움을 청하였더라도 남편과 협력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 사회복지사는 어머니의 어려운 위치에 대한 공감과 지지 제공 뿐 아니라 딸의 보호 및 아들 교육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친척에 의한 성학대인 경우, 가족 안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역할을 잘 평가하고 딸과 가족이 가족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가족과 신중하게 의논해야 한다.

셋째, 어머니들이 근친성학대 문제에 관해 드러냄을 머뭇거릴 경우, 같은 문제를 경험한 '부모지지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통스런 경험을 한 어머니 중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머니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어머니가 '드러냄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준비되지 않은 어머니에게 성급하게 드러냄을 강요하기 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머니의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면서 시간을 갖고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지지집단'의 활용은 도움을 받는 어머니와 도움을 제공하는 어머니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머니들의 상담 지원자로서의 역할 경험은 자신의 고통 극복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어머니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어머니에 대한 개입 과정에서, 가해자의 유형과 어머니의 대처 방식을 잘 고려하여, '부모지지집단'과 협력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 성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에서 근친성학대 부분을 별도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근친성학대에 대한 교육은 근친성학대의 발생과 특성, 후유증, 대처방법 및 예방적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의 목적은 근친성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대를 예방할 뿐 아니라 성학대가 의심되는 행동을 빨리 인식함으로써 적절한 도움을 청하도록 알리는 것이다. 특히 근친성학대가 사회적 금기의 문제라고 해서 이를 덮어두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상처를 속으로 더 곪게 만드는 과정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친성학대를 드러냄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영구적으로 '근친성학대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근친성학대가 일어났을 때 아동과 함께 고통과 변화의 중심에 선 어머니에게 드러냄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드러냄 경험과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근친성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가족을 구체적으로 도울 있는 사회복지실천방법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후에는 근친성학대 성학대의 드러냄 경험이 피해자 본인 또는 형제에게는 어떤 의미로 구성되는지를 탐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과 어머니가 근친성학대를 드러내는 과정이 사회복지사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경험되는지를 탐구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근친성학대 아동과 가족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개입 모색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경희. 2009. “근친성학대 피해자녀 어머니의 생존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영서. 2000. “친족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노혜련. 1996. “Family treatment models for incestuous families.” 『한국가족치료학회지』. 4: 97-117.

박명숙·한인영·유서구. 2008.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 연구』. 16(2): 123-146.

박혜영 · 김연옥 · 홍강의. 1996. “근친강간의 유형과 가족 역동성”. 『소아 청소년정신의학』 7(1): 23-33.

보건복지가족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2008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09. 『2008년도 해바라기 아동센터 사업보고서』.

안옥희. 2000. “친족 성폭력 피해 경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오경자. 1994. “친족 성폭력의 원인”. 『정신건강연구』 13: 1-19.

윤혜미. 1994. “아동 성학대와 사회사업적 접근방법 모색”. 『아동복지학』 2:165-204.

이수경 · 곽영숙. 1994. “소아성학대에 대한 임상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5: 184-193.

전영주. 2004. “가족 내 성폭력 발생의 취약성 요인 및 후유증에 대한 탐색연구: 근친성폭력 생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9(1): 159-177.

정명희. 2004. “아동성폭력 고소과정에서의 어머니의 고통스런 ‘말하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영애. 1994. “친족 성폭력의 실태”. 『정신건강연구』 13: 1-20.

하정숙. 2001. “친족성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목회상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인영 · 김진숙 · 박명숙. 2008. “친아버지에 의한 성학대 피해 아동의 경험”. 『피해자학 연구』 16: 153-175.

한인영 · 김진숙 · 박명숙 · 유서구. 2008. “근친 성학대 피해 아동의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199-240.

홍강의 · 강병구 · 곽영숙. 1998. “의사들의 보고에 의한 근친간 아동성학대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2): 138-147.

최현정 역. 2007. 『트라우마』. Judith Herman. 1997.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플래닛.

Alaggia, R. 2004. "Many ways of telling: Expanding conceptualization of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Child Abuse and Neglect* 28: 1213-1227.

Bell, P. 2003. "'I'm a good mother really!' gendered parenting roles and responses to the disclosure of incest." *Children and Society* 17: 126-136.

Carter, B. J. 1999. *Who's to blame? : Child Sexual Abuse and Non-offending Mother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Crosson-Tower, C. 2005.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Pearson Education, Inc.

Curtis-Webber, A. J. 1995. “Not just another pretty victim: The incest survivor and the media.” *Journal of Popular Culture; Spring95*, 28 Issue 4: 37-47.

Dempster, H. L. 1992. *The Aftermath of Child Sexual Absue: The Women's Perspective*. London: HMSO.

Devoe, E. R., and Faller, K. C. 1999. "The characteristics of disclosure among children who may have been sexually abused." Child Maltreatment, 4: 217-227.

Donalek, J. G. 2001. "First incest disclosure."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2: 573 - 591.

Finkelhor, D. 1984.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The Free Press.

Hooper, C. 1992. Mothers Surviving Child Sexual Abuse. Tavistock/Routledge.

Jensen, T. K., Gulbradsen, W., Mossige, S., Reichelt, S., and Tjersland, O. A. 2005. "Reporting possible sexual abuse: a qualitative study on children's perspective and the context for disclosure." Child Abuse & Neglect 29: 1395-1413.

Johnson, J. T. 1992. Mothers of Incest Survivors. Indian University Press.

Jones, D. P. H. (2000). "Editorial: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4(2): 269-271.

Kim, H. S., and Kim, H. S. 2005. "Incestuous experience among Korean adolescents: prevalence, family, problems, perceived family dynamic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ublic Health Nursing 22(6): 472-482.

Lovett, B. B. (2004).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maternal response and other variables impacting the victim".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1(4): 355-371.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MaIntyre, K. 1981. "Role of mothers in father-daughter incest: a feminist analysis." Social Work 26(6): 462-466

McNulty, C., and Wardle, J. 1994. "Adult disclosure of sexual abuse: A primary cause of psychological distress?" Child Abuse and Neglect, 18: 549 - 555.

Massat, C. R., and Lundy, M. 1998. "Reporting Costs to non-offending parents in cases of in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Child Welfare 77(4): 371-387.

Parker, S. 1987. "The warning of incest taboo." The Legal Studies Forum, 11(2): 205-221.

Plummer, C. 2006. "The discovery process: What mothers see and do and do in gaining awareness of sexual abuse of their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30: 1227-1237.

Roesler, T., and Wind, T. 1994. "Telling the secret: Adult women describe their disclosure of inces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 327-338.

Russell, D. 1983.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intrafamilial and extrafamilial sexual abuse of female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7(2): 133-146.

Russell, D. 1999. The Secret Trauma: Incest in the Lives of Girls and Women. NY: Basic Books.

Trepper, T. S., and Barrett, M. J. 1989. Systemic Treatment. NY: BrunnerMazel.

van Manen.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Wyatt, G. E. 1985. "The Sexual abuse of Afro-American and white women in child." Child Abuse and Neglect 9: 507-519.

A Study on Mother's Experience in Disclosure of Incestuous Sexual Abuse

Kim, Kyung-Hee
(Ewha Womans University)

The incestuous assault tends to remain a family secret and not easily be disclosed. Mothers of the victims are usually regarded as the responsible person holding the key to decide whether it should be disclosed or not. Sometimes, therefore, they are blamed with the charge of conniv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ssence of mothers' experience of disclosing and to understand the subjective meaning given to this experience. Seven mothers of the female victims of incestuous assault were recruited and interview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 The essential theme of the mothers' disclosing experiences could be summarized as "overcoming pain by going through pain". This major theme contained three sub-themes: "wanting to vent the deepest tormenting pain", "getting hurt again by disregard and indifference from others", "attempting to tear open the festering wound and to feel recovered". Mothers experienced the disclosing process as revisiting the hidden wound to find the meaning of the incident and to cultivate the necessary skill and power to overcome the pain. Especially, mother's disclosing process was characterized by constant restructuring of past trauma through mother's will and knowledge, acknowledging the unmodifiable past, interpreting other people's responses, and, finally, constantly interacting with sociocultural context. The study result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whole array of difficulties and meanings experienced by mothers in the disclosing process. Social work services should provide more professional and sensitive care when mothers try to disclose the dark secret of incestuous assault.

Key words: Incestuous sexual abuse, mother, blame, disclosure, phenomenological study

〔논문 접수일 : 09. 06. 16 심사일: 09. 08. 04 게재 확정일 : 09. 08. 13〕